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

임 현 주* · 조 호 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Fabrics and Pattern of the Excavated Costume During 16·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Hyun-Joo Yim* · Hyo-Sook Cho**

Instruct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4. 7. 27 투고)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extiles used for ancient costumes of the 16·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focusing on fabric types and patterns of the costumes from tomb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brics and social backgrounds, especially change in using fabrics through the war from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Since the war must have had an effect on the life of peopl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silk occupies 69% of all textiles, and cotton, linen follow. The weaving method of silk was primarily plain and satin weaves. However the use of twill, gauze, and double weave, that had led weaving methods of silk during the *Koryo* Period, were considerably decreased in *Joseon* Period.

Types excavated fabrics in the 16·17th century *Joseon* period can be said various. Of this, silk was the most remarkable one till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when the ratio of patterned silk dramatically decreased. Contrarily, the ratio of cotton and plain fabric increased rapidly in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is supposed that the result is largely due to unusual condition of the war time. After the war, it is estimated that use of patterned fabric as well as silk was decreased.

Patterns of textile fabrics in 16·17th century were various. In result of surveying a trend of increment and decrement, it is known that the ratio of patterned textile fabrics decreased dramatically in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Manchu war of 1636*.

Tendency of textile use by social position is more notable. It is appeared that a lot of silk fabrics were used in High hierarchy. The excavated remains and ratio of silk were the highest in *Kyonggi* Province including *Seoul*.

Key words : excavated costumes(출토복식),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임진왜란),
fabric types and patterns (직물유형과 문양)

I. 서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 16·17세기 복식에 사용되었던 직물에 관한 연구로 직물의 조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문양을 조사하였다. 이제까지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복식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복식의 유형과 구조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에 상대적으로 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세부적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최근 발표된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袍類에 사용된 직물유형 연구¹⁾' 논문이 있으나 이것은 포류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출토직물의 성분과 조직 및 문양에 따라 직물의 유형을 분류하여 당시 의복 품목에 따른 직물사용 경향 및 특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15세기 후반부터 말기까지 걸쳐 수합된 출토복식의 수량이 도합 천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특별히 연구범위를 16·17세기로 한정하는 이유는 출토복식 수량의 90% 이상이 이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 시기이므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직물사용의 추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사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6·17세기의 사회상과 출토복식자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16·17세기 출토직물의 유형과 문양을 구분하고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연구 방법은 복식에 사용된 각각의 직물을 나열하고 그 성분과 조직에 따라 직물을 세분화하여 표로 구성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직물 사용에 어떠한 변화가 발견되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묘주의 신분과 지역에 따른 직물사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자료조사는 직접조

사와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경기도 양평출토 원주변씨 변수(1447-1524), 경기도 파주출토 파평윤씨(?-1566), 경기도 용인출토 청송심씨 심수륜(1543-1589), 서울시 사당동출토 여흥민씨(1586-1656) 직물의 경우는 기초조사 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물자료를 직접 조사할 수 있었으나 그 외의 유물들은 박물관의 사정상 직접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 발행된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 전시도록, 학위논문, 학회지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였다.²⁾

연구 대상으로 삼은 16·17세기 출토 남녀 복식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袍類로 분류할 수 있는 복식으로 團領·直領·方領·帖裏·腋主音·長衣·道袍·戰服·襜褕·半袖衣·小氍衣·大氍衣·中致莫·周衣 등이 있으며 赤古里類로 분류한 단저고리·장저고리·겹저고리·삼희장저고리·赤衫·汗衫 등이 있다. 또한 치마와 바지류가 있는데 보고서 명칭에 바지·개당고·합당고·속바지·속곳류 등이 있다. 그러나 喪禮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殮襲具 및 治棺諸具와 모자, 버선, 대대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복직물은 걸감을 기준으로 삼았고, 철릭의 고름바대나 저고리의 결마기·끝동, 포류의 깃·무와 같이 간과할 수 없는 세부직물은 별도로 조사하였다.

직물의 명칭은 과거에 조사된 대부분의 보고서에 명주나 공단 등 편의상 현대적 명칭으로 일괄되고 있으므로 되도록 당시에 맞는 직물명을 사용하기 위해 문헌자료들³⁾을 참고하였다.

직물의 유형은 성분 및 조직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크게 섬유 성분에 따라 면·마·견·교직으로 나누었고, 다시 마직물은 苧布와 麻布로, 견직물은 조직에 따라 평직·능직·익조직·수자직·중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견직물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직물·유문직물로 나누었다.

<표 1> 16·17세기 출토복식 자료 목록

No.	묘 주	추정 시기	출처 및 소장처	No.	묘 주	추정 시기	출처 및 소장처
1	양천허씨	1500년대추정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41	장기정씨	1565-1614	포항내단리 장기정씨묘 조사보고서 출토복식창간호
2	변수	1447-1524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42	김약	1559-1625	
3	김흥조	1461-1528	영주시 판결사 김흥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	43	이응해	1547-1626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 박물관 2002
4	고운	1479-1530	공주전남 지역출토 조선중기 우리옷	44	숙부인 양천허씨	1566-1626	韓國服飾17호

No.	묘주	추정 시기	출처 및 소장처	No.	묘주	추정 시기	출처 및 소장처
5	정은	1481-1538	韓國服飾 16호	45	구례손씨	1576-1626	충북대 박물관 조사보고서 8
6	이인손	1477-1543	고문화재 52집	46	박신통	1575-1627	문화재대관
7	홍계강	?-1550년대	조선전기출토복식 연구	47	제주고씨	1560-1630	韓國服飾 15호
8	원주원씨	?-1550년대	조선전기출토복식 연구	48	이홍망	1572-1637	韓國服飾 미발표
9	일선 문씨	?-1550.60	안동정상동일선문씨와 이응태발굴조사보고서	49	임계백	1598-1639	服飾51권1호
10	안동 김씨	?-1560	文化財4호	50	양천허씨		
11	파평 윤씨	?-1566	고려대박물관	51	정광경	1586-1644	동래정씨묘 출토복식조사보고 서 경기도 박물관
12	이팽수 안산김씨	1523-1579 1520-?	전주이씨태안군묘 발굴 조사 보고서-고려대박물관-	52	문익신	1556-1645	服飾10호
13	정응두	1508-1572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53	진주하씨	1580-1646	
14	은진 송씨	1509-1580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54	정양우	1574-1647	韓國服飾8호
15	이언용	중종~선조 (1580년대)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55	김철의 딸	1579-1648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은고22책
16	청주한씨			56	여흥민씨	1586-1656	동래정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 서 경기도 박물관
17	신여관	1530-1580	韓國服飾17호	57	임경백	1594-1657	服飾51권1호
18	신언식	1519-1582	韓國服飾17호	58	밀양손씨	1592-1660	服飾51권1호
19	이언충	1524-1582	韓國服飾20호	59	동래정씨	1572-1653	김확1572-1653배위
20	이석명	1513-1583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60	남양홍씨	1584-1654	韓國服飾8호
21	동래 정씨	?-1583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제7 5호	61	예안이씨 (홍극가모친)	1584-1655	안동지역전통복식,1996. 안동대학교박물관
22	김침	1541-1584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은고 충북대학교박물관	62	전주 이씨	1592-1657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 논고22책
23	벽진 이씨	?-1585	조선전기 출토복식	63	문영 부인	1637-1658	복식보존처리보고서 (문화재관리국,1994)
24	이응태	1556-1586	연구안동정상동일선문씨와 이응태묘발굴조사보고서	64	양천 허씨	1630-1660	韓國服飾11호
25	심수윤	1543-1589	경기도박물관	65	이지원	1616-1666	韓國服飾10호
26	파평윤씨	1558-1589		66	문화 유씨	1616-1666 1617-1685	韓國服飾10호
27	연안김씨	임란이전추 정	경기도박물관	67	이천기	1610-1666	문화재대관,복식보존처리보고 서 (문화재관리국,1994)
28	장흥 임씨	1590 년대	문화재대관	68	정태계	1612-1669	韓國服飾8호
29	은진송씨	1554-1594		69	홍극가 ? -1670		문화재대관
30	순천 김씨	1537-1594	服飾2호	70	숙부인 홍려 박씨	1605-1672	복식보존처리보고서 (문화재관리국,1994)
31	김덕령	1567-159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조 사보고서제75호	71	고령신씨	1604-1673	한산이씨중간공이구조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1993)
32	김합	1568-1598	조선전기출토복식연구	72	경주 이씨	?-1684	服飾 51권4호
33	전 박장군	임란전후	임란전후출토복식의상례, 문화재대관	73	최원립	1618-1690	이화 여대 박물관
34	제주고씨일가	임란전후	韓國服飾15호	74	홍우협	1655-1691	홍우협묘출토17세기복식은고 (1993)충북대박물관
35	진주하씨	임란직후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 조사보고서 건들바우박물관	75	정재후	1624-1695	동래정씨묘출토복식조사보고 서, 경기도 박물관
36	김위	임란전후	문화재대관	76	원주원씨 (김대경의처)	1633-1695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은고
37	단양장씨	1500년대말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환생	77	최숙	1636-1698	韓國服飾14호
38	울산이씨	1600년대	服飾2호	78	이행익	1636-1700	박물관지제3호(1996) 강원대박물관소장
39	정휴복	1529-1604	韓國服飾7호	79	홍진중	1649-1702	문화재대관,지정문화재목록및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75호
40	조경	1541-1609	조경묘 출토복식	80	김덕원 일가	1634-1704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75호

직물의 문양은 전개방법, 문양의 종류, 구성방법에 따라 정리하고 이들을 통하여 조형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II. 16·17세기 시대적 배경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은 16~17세기로 조선역사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4기로 구분 하였을 때 중기에 해당하며, 사회경제사의 시기구분에 의하면 양반지배체제의 안정기 또는 前期的 國役體制의 해체기에 해당한다. 16·17세기의 사회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정치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지방 중소지주 출신의 士林세력과 기존의 훈구세력이 대립하였고 사회를 겪는 동안 외척에 의한 척신정치가 朋黨정치로 전환되었으며, 그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은 성리학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따라서 孝보다 忠를 강조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禮의 시행을 강조했다.

둘째, 경제적으로 상업과 농업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상업의 발전은 15세기 후반부터 중앙의 시전이 성장하였고, 지방에서는 場市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임진왜란 직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열리게 되었다. 농업은 집약농업기술이 발달함으로 시장경제가 성장하였고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은 곧 중소지주층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곧 이들의 경제력이 의례 시행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15세기에는 朱子家禮의 예가 존재하였고 16세기는 國朝五禮儀의 탄생과 함께 주자가례의 예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예의 생활화를 의미하는데 동시에 유교적 생활방식의 확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사상적으로는 성리학 이론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사림이 정치집권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예학을 강조하며 유교문화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17세기 초반에 이르러는 다양한 사상들이 부각되고 상호 영향을 주며 전개되어 당시 사상계를 풍부하게 하였다.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복식연구의 정신적 틀이랄 수 있는 예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17세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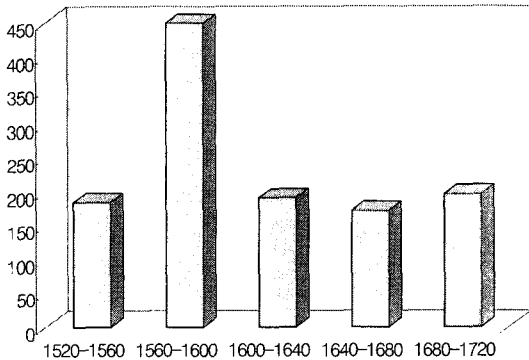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다. 이미 15세기 말부터 사림들에 의해 삼대(三代)의 예에 의한 교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중종대에 들어오면 사림에 의해 『주자가례』와 『의례』가 『국조오례의』나 漢唐禮보다 더 강조되면서 '國朝五禮儀派'와 '古禮派'의 전례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16세기 중반 『주자가례』중심의 생활규범인 祭禮書가 출현하고 동시에 『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6세기 후반에 가면 성리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禮에 관심을 가지고 禮에 관한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양란으로 인해 해이해진 사회질서의 회복이 강조되면서 禮는 더욱 중시되었으며 나아가 禮로 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려지고 禮教보다 앞선 가르침이 없으며 예학보다 절실한 학문이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⁴⁾ 결국 禮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도로 부각되었고 이를 禮治라 부르게 되었다. 예학이 발달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량의 가례서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禮의 시행을 장려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례서의 내용으로 볼 때 상례례서에서 상례강조로 바뀌게 되었다.⁵⁾

III. 16·17세기 출토직물의 유형 및 사용실태

1. 출토복식 현황

16~17세기로 추정되는 출토복식의 현황을 각각의 묘주별로 출토된 복식수량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1560년에서 1600년에 이르는 시기에 출토복식의 수량이 집중되게 나타났다. 명종 15년부터 선조 33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는 16·17세기 내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출토수량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16·17세기를 1520년대부터 40년 단위로 분할하여 보았을 때 출토수량의 2.5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儀禮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시기는 예학이 매우 강조되었던 시기로 예학이 정리되어 안정기로 접어드는 17세기보다

오히려 상장례 풍습이 까다롭게 시행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조선시대 묘제 자체도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분기점이다. 따라서 1520년에서 1600년에 이르는 시기에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출토복식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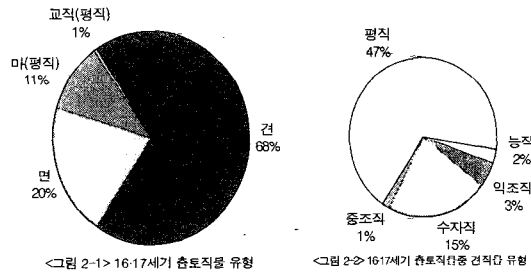
<그림 1> 16·17세기 출토복식 수량 분포

직물이 보고 된 16~17세기의 출토복식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정리하면 총 941점 가운데 포류에 해당하는 복식은 모두 524점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였다. 그 중 포류로는 단령 36점, 직령 53점, 방령 10점, 철릭 130점, 액주름 32점, 장옷 80점, 도포 9점, 답호·반수의 50점, 전복 7점, 창의류 107점, 주의 7점으로 포류 중에는 철릭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다음으로 창의류, 직령의 순으로 다량 출토되었다. 그 밖에 저고리 234점, 적삼 및 한삼이 45점으로 저고리류는 전체의 22.9%, 치마 80점, 바지류 141점으로 각각 7.8%, 13.8%를 차지하고 있다.

2. 출토직물 유형

16~17세기에 해당하는 모든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분류의 기준은 섬유 종류, 조직법, 문양의 유무에 따라왔으며 크게 15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섬유의 종류에 따라 면직물, 마직물, 견직물,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혼합된 교직물로 나누었다. 면직물의 종류는 면포 한가지였으나 마직물은 원사에 따라 저마(Ramie)로 제작된

저포(모시)와 대마(Hemp)로 된 마포(삼베)로 구분하였다. 견직물은 조직에 따라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으로 나누고 중조직을 제외한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은 각각 무늬가 있는 유문직물과 무늬가 없는 무문직물로 세분화 하였다. 그리고 교직물은 原絲의 종류에 따라 견사와 면사로 제작된 絲綿교직, 견사와 저사로 구성된 絲苧교직, 면사와 저사로 된 綿絲교직으로 세분하였다. 16·17세기 출토 직물을 종합하여 소재와 조직별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그림 2-1>과 같이 면 205점, 마 109점, 견 702점, 교직 10점으로 전체의 약 68%가 견직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면직물 20%, 마직물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은 전체의 1%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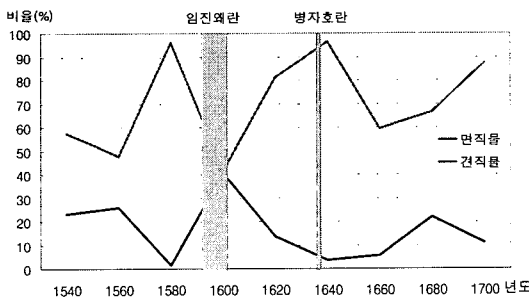
<그림 2> 16·17세기 출토직물 유형

또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견직물을 다시 조직별로 분류하면 <그림 2-2>와 같이 평직이 47%로 가장 많고, 수자직이 15%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익조직 3%, 능직 2%, 중조직 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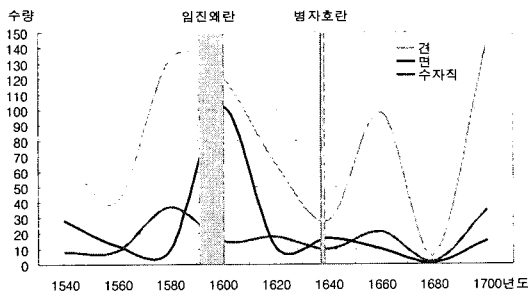
16·17세기 출토직물 전체 가운데 면직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견직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연도는 20년 단위로 나누었으며, 특별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을 분수령으로 면직물과 견직물 사용에 있어 뚜렷하게 대조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출토직물은 전체적으로 면직물보다 견직물의 비율이 높았는데, 임란시기에는 견

직물의 사용이 급격히 줄고 면직물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가장 고가상품인 단직물의 사용추이를 알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면직물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란 이전 시기에는 緞직물(수자직)의 출토 수량이 면직물보다 많았으나, 임란을 치르는 시기에 단직물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며 임란이 종료된 후 서서히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당시 만큼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병자호란(1636년) 시에도 수자직이 면직물보다 적게 나타나다가 1650년 후 다시 수자직의 사용이 많아졌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을 겪는 시기에는 수자직의 緞직물과 같이 화려한 직물의 사용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면직물의 사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물사용의 경향이 사회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쟁과 같은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함을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특별히 전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로 해석하여 당시의 어려웠던 경제상황 극복의 일환으로 고위 관직자들도 저렴하고 소박한 면직물의 사용을 확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16·17세기 면직물과 견직물 사용의 변동



<그림 4> 16·17세기 면직물과 단직물(수자직)의 수량 변동

3. 의복별 직물사용 실태

16·17세기의 출토복식의 수량을 품목별로 살펴 보면 저고리의 수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지, 철틀릭, 창의류, 장옷, 직령, 답호와 반수의, 단령, 적삼 및 한삼, 방령, 도포, 전복, 주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류 내에서의 출토수량은 철틀릭, 창의류, 장옷, 직령, 답호·반수의, 단령, 액주름, 방령, 도포, 전복, 주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적삼·한삼 및 바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견직물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견직물 다음으로는 면직물, 마직물 그리고 교직물의 순으로 다량 출토되었다.

16·17세기에 사용된 직물의 비율을 의복별로 비교한 결과 방령과 창의류에서 견직물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복과 철틀릭 저고리와 치마 또한 견직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직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바지이며 마직물은 적삼·한삼, 도포, 바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직물은 단령, 직령, 답호·반수의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단령은 출토된 수량에 비해 교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 포

(1) 단령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단령에 사용된 직물은 16세기에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직물이 나타나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여 착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면소재의 단령이 주로 나타났고 17세기 이후로는 면·마·교직은 나타나지 않고 평견직물과 단 종류로 된 단령이 많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다양한 소재의 단령을 사용했던 16세기에도 유문평직 단령, 능직과 중조직 단령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단령에 사용된 직물이 무문평직과 유문수자직(단직물)으로 단순화되었다<표 2>⁶⁾.

<표 2> 단령에 사용된 직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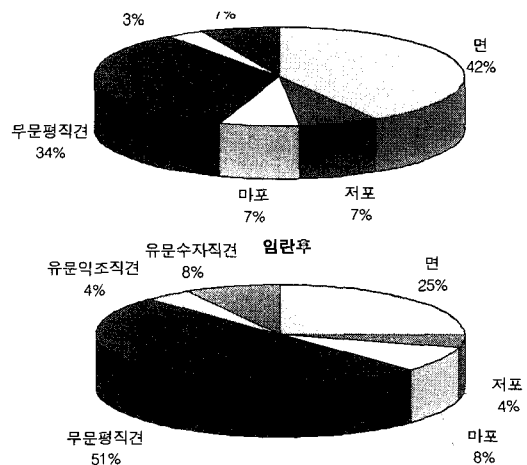
묘 주	추정 시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 직	사면	사저		사마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변 수	1447-1524					1				1									2
김흥조	1461-1528	1		2													2	2	7
고 운	1479-1530	1																	1
정 온	1418-1538	1	1																2
홍계강	1550년대		1			1						1							3
파평윤씨	? -1566											1							1
정응두	1508-1572											1							1
이언웅	1580년대												1						1
신연식	1519-1582	1																	1
신여관	1530-1580추정					1													1
벽진이씨	?-1585																1		1
이응태	1556-1586	1																	1
심수윤	1543-1589					1													1
김위	임란전후					1													1
전 박장군	임진왜란직후			1															1
제주고씨 일가	임진왜란전후												1						1
정휴복	1529-1604	1																	1
조 경	1541-1609					2				1									3
장기정씨	1565-1614										1								1
전주이씨	17세기초반									1									1
이응해	1547-1626					1					1								2
고여우	1560-1630	1																	1
정양우	1574-1647											1							1
홍우협	1655-1691											1							1
최 숙	1636-1698											1							1
김덕원 일가	1634-1704											1							1
계		7	2	3	0	8	0	0	2	1	9	2	0	3	2	0			39
			5			8			0	3		11		5					

(2) 직령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직령의 소재는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면·마·무문평견직물로만 만들었던 과거에 반하여 유문수자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임란 이전에는 무문수자직과 교직의 직령이 있었으나 임란이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임란이후에 유문수자직과 유문익조직의 직령이 나타났다. 또한 임란 이전에는 면으로 된 직령의 비율이 45%였으나 임란이후 25%로 감소되었고, 무문평견직물로 된 직령의 비율이 임란 전 34%에서 임란 후 51%로 증가되었다.

(3) 방령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방령에 사용된 직물을 조사한 결과 1점이 면이고, 모두 견직물이고 그 중에서 6점이 수자직의 단이였



<그림 5> 직령에 사용된 직물

<표 4> 철릭에 사용된 직물유형

묘주	추정 시기	면	마		견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사마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변 수	1447-1524						11				2	1	2	1					17
김흠조	1461-1528	2		4			5									2			13
고 운	1479-1530	1	2				3												6
정은	1418-1538						7												7
홍계강	1550년대		1				1			1		2							5
정응두	1508-1572						8			1		2							11
이언웅	1580년대						1												1
신언식	1519-1582		1				2												3
신 여관	1530-1580						10												10
이연충	1524-1582		1				2					1							4
이석명	1513-1583						8												8
이응태	1556-1586	1	2	1			3												7
심수윤	1543-1589		2				7												9
장홍임씨	1590년대	1																	1
순천김씨	1530-임란이전		1				1												2
김 위	임란전후						2												2
김덕령	1567-1596		1				1												2
정휴복	1529-1604		1				3												4
조 경	1541-1609						1				1	1							3
이응해	1547-1626						1					1							2
이흥망	1572-1637									1		1							2
정양우	1574-1647										1	1							2
문화유씨	1617-1685						1												1
홍우협	1655-1691						2												2
최 속	1636-1698											2	1						3
이행익	1636-1700						2			1									3
감덕원알가	1634-1704											1							1
계		5	12	5	0	82	0	0	6	3	14	2	0		2	0	0		131
			17			82			9		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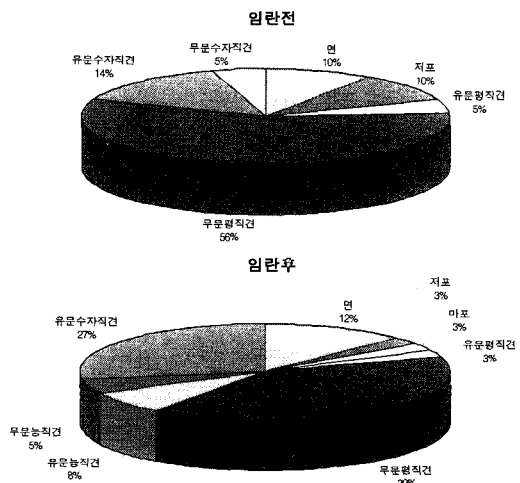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철릭의 고름바대와 같이 장옷도 길과 소매가 모두 무문직물이라도 깃과 겨드랑이 무는 조직을 달리하여 화려한 문직물을 대는 디자인의 특성을 보인다.

(7) 도포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도포는 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견중에서도 무문평직물이 80%를 차지하였다.

도포에 사용된 직물로 임란이전은 무문평직이 100%로 나타났고 실제로 임란이후에 착용된 도포에 사용된 직물은 무문평직견(37%), 면(24%)과 함께 마포(13%), 저포(13%), 그리고 무문익조직의 견(13%)이 조사되었다. 도포에 평직물 이외의 것으로는 유일하게 동래정씨 일가에서 출토된 무문 익조직의 삼죽항라가 쓰인 것이 1점 있으나 단령,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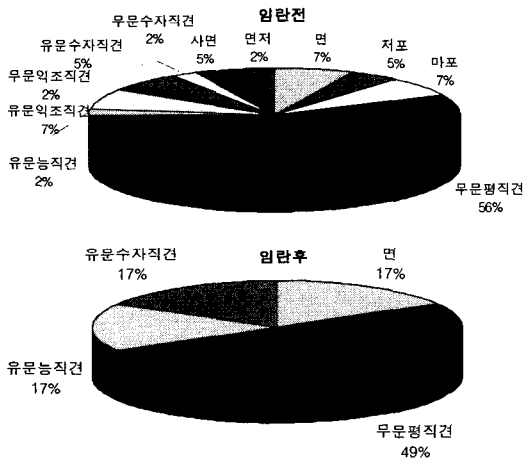
<그림 6> 장옷에 사용된 직물

등에서 보이는 화려한 유문수자직·유문 익조직의 옷감은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8) 답호·반수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답호와 반수의에서 견직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조사되었고, 견중에서도 무문 평직의 견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유문 수자직, 유문 익조직, 유문 능직, 무문 수자직, 무문 익조직의 순으로 끌고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임란 이전의 답호와 반수의는 면, 마, 평직·능직·익조직의 견, 교직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만, <그림 7>에 나타나듯이 임란 이후에 이르러서는 평견직물이 주를 이루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 7> 답호·반수의에 사용된 직물

(9) 전복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다른 품목에 비해 출토량이 많지 않은 전복은 마직물, 능직·중조직의 견 그리고·교직물을 제외하고 평직, 익조직, 수자직 등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10) 창의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창의류는 임란을 전후하여 등장하기 시작하여 주로 임란 이후의 분묘에서 다량 출토 되었다. 총 107점의 창의류가 조사되었는데 견직물의 비율은 90%이고, 견직물 중 평직의 비율이 91%로 대부분을 차

지하며 수자직이 8%, 능직이 1%로 조사되었으며, 익조직과 중조직은 없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점으로 추정되는 유물에서는 면직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짐작케 한다. 1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창의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다량 출토되었다. 임란 이후에 창의에 사용된 직물로는 대부분이 무문평견직물로 79%를 차지했으며, 면 8%, 유문수자직견 6%, 유문평직 2%, 무문능직 1%, 마포 1%, 저포 1%가 조사되었다.

(11) 주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주의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출토되었으며, 면 이외에 무문 평견직물로 압축되어 모든 포류 중에서 직물 종류가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다.

2) 저고리

(1)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저고리 유물은 남녀의 구분이 곤란하여 성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에 '단저고리, 장저고리, 겹저고리, 회장저고리'라 호칭한 것을 조사하였고 적삼 및 한삼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저고리는 구성상 특징으로 겹마기나 쏘, 깃·끝동 등 부분적으로 異色의 화려한 紋織物을 대었다. 따라서 저고리의 겹감 직물만 조사하고 부분의 직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세부직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6·17세기의 저고리 전체를 볼 때 무문평직의 견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유문수자직, 세 번째로 면직물이 많았다. 또한 16·17세기의 저고리(겹감)에 사용된 직물의 구체적인 특징은 <그림 8>과 같다.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로 임란 전에 비하여 임란 후에는 무늬가 있는 평직, 능직, 수자직과 무늬가 없는 능직이 많이 나타났다.

(2) 적삼과 한삼에 사용된 직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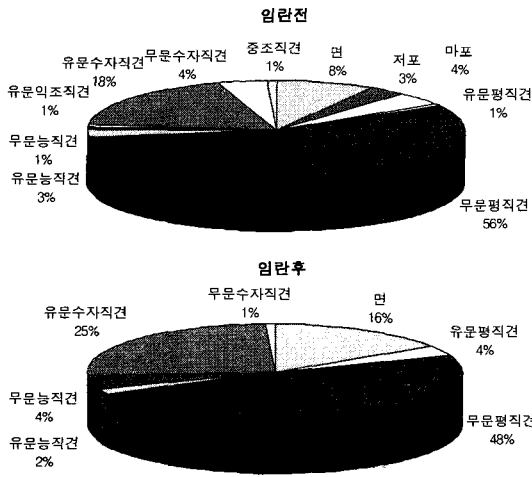
적삼과 한삼은 마섬유가 53%를 차지하며 같은 마섬유에서도 배보다는 모시(저포)가 많았다. 다음으로 면과 무문평직견이 조사되었고, 유일하게 정 온(1481-1538)의 유물에서 익조직의 花紋唐草紋紗織삼이 보고 되었다.

<표 5>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 유형

묘주	추정 시기	면	마		견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 직	사면	사저		사마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양천허씨	1500년대	1				2							2						5
변 수	1447-1524					1													1
김흠조	1461-1528					2													2
정 은	1481-1538					3													3
홍계강	1550년대					2						1							3
일선문씨	?-1550.60	3	3			6						2							14
안동김씨	?-1560					2													2
파평윤씨	?-1566					14		1				6							21
정응두	1508-1572					6	3					5	2	1					17
이인응	1550년대																		
청주한씨	중종-선조		1	4		4						7	1						18
신여관	1530-1580					2													2
신언식	1519-1582					1													1
이석명	1513-1583					1													1
이응태	1556-1586	1				3													4
심수윤	1543-1589					2						1							3
장흥임씨	1590년대	3				6													9
순천김씨	임란직전	1				6													7
제주고씨 일가	임란전후	1			1	4													6
전 박장군	임란전후	1				5						3							9
진주 하씨	임란직후	2				6													8
김 함	1568-1598	1				1													2
정 북	1529-1604	1				1													2
조 경	1541-1609					3													3
장기정씨	1565-1614					3	1					7							11
양천허씨	1566-1626	1			1	1						1							4
구례손씨	1576-1626					1													1
고여우	1560-1630	1				5													6
임개백	1598-1639	3				1													4
문익신	1556-1654	1				2													3
정양우	1574-1647					1													1
김첩의딸	1579-1648	1				1		1											3
남양홍씨	1584-1654					1						2							3
여흥민씨	1586-1656				1	4	1	1				3							10
임경백	1594-1657	1																	1
양천허씨	1630-1660				1	2						1							4
경주이씨	?-1684	2				3													5
문화유씨	1617-1685	2				4													6
원주원씨	1633-1695	1				2													3
홍우협	1655-1691				1	3						2							6
김덕원 일가	1634-1704					5		3				10	1						19
계	28	4	5	5	122	5	6	1	0	51	6	1	0	0	0	0	0	0	234
			9		127		11		1		57		1					0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적삼과 한삼에 사용된 직물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임란 이후에 면소재로 된 적삼의 비율이 13%에서 46%로 증가하였고 임란이전

에 23%의 비율이었던 마포는 7%로, 임란이전에 41%였던 저포 역시 27%로 감소하였다.



<그림 8> 저고리에 사용된 직물

3) 치마

치마는 면과 마보다 치마의 소재로도 역시 견이 다량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견중에서도 무문평직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유문 수자직이 다음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또한 면포도 유문수자직 다음으로 치마 소재로 즐겨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저포, 유문능직과 무문수자직, 무문능직과 유문평직이 고르게 나타났다.

4) 바지

16·17세기 출토 바지류는 복식품목 중에서 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자의 속바지가 다량 포함되어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바지류에 사용된 직물은 면, 마, 무문평직의 견이 주를 이루며 면과 견이 각각 43.3%, 36.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일하게 여흥민씨(1586-1656)묘에서 유문평견직물로 된 바지가 1점 출토되었다.

4. 사회적 요인에 의한 직물 사용 실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요인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착용자의 직급과 지역별로 직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직물사용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단, 직급에 있어서 묘주 본

인의 관직뿐만 아니라 남편의 관직 또는 부모의 관직도 포함했음을 밝히며, 간혹 묘주의 직급이 死後에 증직된 경우는 生時의 직급을 기준으로 삼았다.

1) 신분별 직물사용 실태

신분은 관직의 품계에 따라 당상관, 당하관으로 나누고 그 외에 관직이 없는 자는 무관자로 분류하였다.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묘주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신분에 따른 직물 사용의 차이가 있었다. 신분별로 직물 사용실태를 비교하였는데 당상관과 당하관에서만 견직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관직이 없는 무관자의 분묘에서는 견직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분묘의 발굴건수나 출토복식수량에서도 무관자의 것은 거의 없고 당상관과 당하관의 출토수량도 2배가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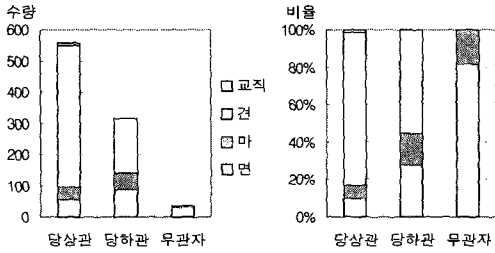
임란 이전 당상관은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주·문사·문단 등 고급 문직물의 사용도 있었다. 또한 당상관의 면직물사용은 임란 이후보다 이전 시기에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임란이후에 면직물의 추포화 현상이 일어나 면이 서민들의 옷감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이는 고려말 면종자의 도입과 함께 면직물이 새롭게 등장한 고급직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하관의 직물은 평견·면·마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그림 9>와 같이 당하관의 견직물 사용은 전체의 59%로 당상관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능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하관의 문직물 사용은 당상관의 3분의 1 수준으로 당상관에 비하여 단연 차이가 났다.

무관자는 면·마직물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직물사용경향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견직물도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였으나 임란이후 직물 사용 경향이 평견직물과 수자직으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직급을 세분화하면 당상관 달리 당하관의 직물에서는 교직과 능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9>는 직급별로 직물사용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물의 종류를 크게 면, 마, 견, 교직물로 나누고 수량과 비율로 살펴본 것이다. 당상관의 직물사용 구성비율은 면 9.5%, 마 6.6%, 견 82.5%, 교직물



<그림 9> 신분별 직물 사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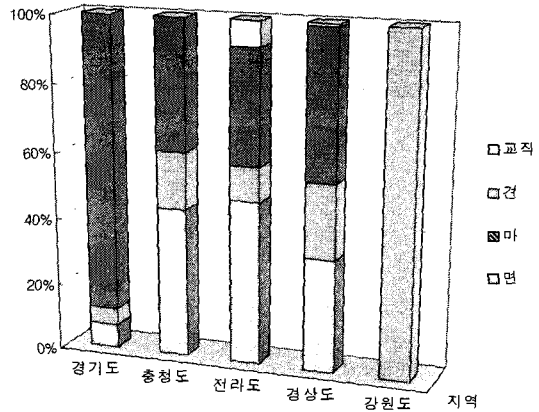
이 1.4%로 나타났고, 당하관은 면 25%, 마 16%, 견 59%로 나타났으며, 무관자는 면 82%, 마 18%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당상관과 당하관은 견직물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나 무관자에게서는 견직물이 나타나지 않았고 면직물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출토되었다. 또한 교직물은 당상관에서만 나타나는 고급직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견직물의 비율 역시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가 있었다.

2) 지역별 직물사용 실태

본 논문에서 16·17세기 직물을 출토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출토 복식의 수량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별로 출토복식 수량에 편차가 생기는 이유로 첫째는, 서울을 둘러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타 지역에 비해 발굴된 묘역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 특성상 수도를 포함한 경기도가 왕실을 중심으로 고위 관직자들의 좋은 못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역마다 이장관습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장移葬시 시신에게 새로 제작한 수의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신이 착용한 수의를 후손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장하여 수의는 물론 보공의류조차 출토복식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견 종류가 많이 출토되었고, 경상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의 비율은 출토 수량에 비해 경기도가 적었고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그림 10> 지역별 출토직물 유형

(1) 경기도

경기도에서 출토된 복식은 총 575점이 조사되었는데 면 41점, 마 28점, 견이 506점이다. 견은 다시 평직 60%, 능직 3%, 익조직과 수자직이 각각 6%, 18% 그리고 중조직 1%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지역의 특성상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宗親과 고위 관직자들의 묘역이 많기 때문에 직물의 종류도 면직물 보다는 유문 수자직, 익조직 등 고급 견직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2) 경상도

경상도는 집권층의 영향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국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하고 출토 수량이 많다. 면이 84점으로 34%를 차지하였으며, 무문평직견 29%, 마포 12%, 저포 10%, 유문수자직견 9%, 무문수자직견 2%, 중조직 2%, 그리고 유문익조직과 유문능직의 견이 각각 1%씩 차지하였다. 이처럼 경상도는 경기지역에 비해 면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직물은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에서만 나타나며 충청도, 강원도 및 전라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견직물과 면직물이 많지만 모시와 마포의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충청도

충청도는 총 10건의 묘역이 발굴되었고 총 10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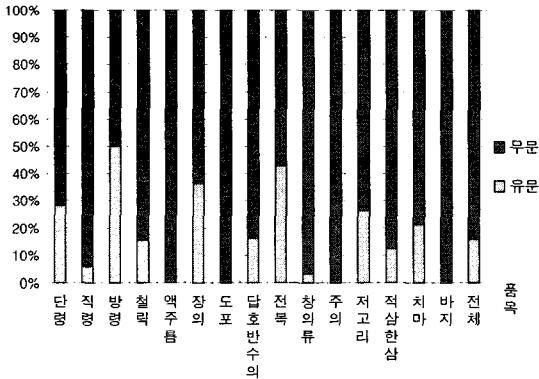
의 직물이 조사된 가운데 면직물과 견직물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마직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면 45%, 견 38%로 견은 대부분이 무문의 평견직물이었으며 유문 수자직도 9점 출토되었다. 면직물의 비중이 45%로 전라도(50%)보다 작으나 경상도(33%)와 경기도(7%)보다 크다.

(4) 전라도

전라도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출토묘역이 가장 적은 곳이다. 전라도 지역의 출토직물은 면 33점, 마 7점, 견 23점으로 면이 50%나 차지하여 면직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IV. 출토직물의 문양 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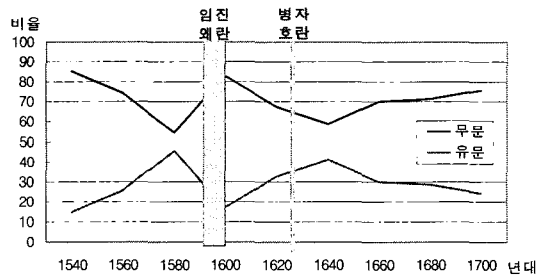
16·17세기 출토직물을 문양이 없는 무문직물과 문양이 있는 유문직물로 분류한 결과, <그림 11>과 같이 전체직물 가운데 유문직물의 비율이 15%를 약간 넘게 조사되었다.



<그림 11> 16·17세기 의복별 유문의 비율

16·17세기의 출토복식 중 유문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의복은 방령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복, 장옷, 단령, 저고리, 치마, 담호·반수의, 철릭, 적삼·한삼, 직령, 창의류, 바지의 순으로 문직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령이나 전복의 경우는 출토수량이 적은 가운데 유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이고 실제로 장옷에 화려하고 다양한 문직물을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었다. 액주름, 도포, 주의는 포류 중에서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품목들이다. 또한 바지와 적삼·한삼에도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바지는 유일하게 여흥민씨(1586-1656)의 유물에서 능화문의 유문바지가 1점 출토되었고, 적삼은 정은(1481-1538)의 유물에서 연화당초문사의 적삼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2> 유문과 무문의 시대별 증감추이

<그림 12>는 시대별로 유문과 무문의 증감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문직물의 사용을 비율로 환산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무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병자호란을 전후 하여서는 임진왜란 시점보다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무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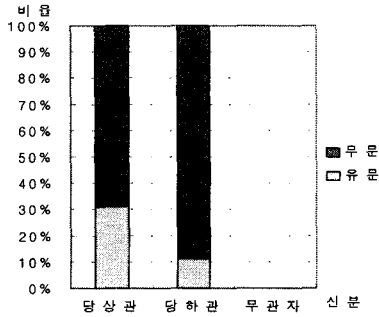
1. 사회적 요인에 의한 문양사용 실태

1) 신분별 문양사용 실태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묘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분에 따라 직물의 조직과 함께 문양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당상관의 복식에서는 임란 이전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문주·문사·문단 등 고급 문직물도 나타났다. 당상관 복식의 유문직물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하관의 복식은 문직물 사용이 10% 정도로 당상관의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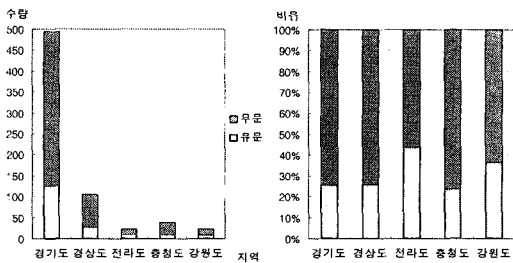
의 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관직이 없는 무관자의 복식에서는 문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3).



<그림 13> 신분별 문직물 사용

2) 지역별 문양사용 실태

16·17세기 문직물의 사용은 신분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도 존재한다. 유문직물의 사용이 가장 많게 조사된 곳은 경기도이며 그 다음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순으로 유문직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토수량에 따른 유문의 비율로 보면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의 순으로 높은 유문의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그림 14A>, <그림 14B>와 같이 지역별 문양사용실태를 수량과 비율로 비교 조사 정리한 결과, 출토복식 중 유문의 수량과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A> 지역별 문양사용 (수량) <그림 14B> 지역별 문양사용 (비율)

본 논문에서 직물의 조직과 문양의 사용실태를 신분요인과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 두 요인은 개별성을 띠는 것

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로써 불가분의 해석이 요구되었다. 즉, 고위 관직자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출토수량과 고급 문직물의 비율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 16·17세기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과 문양에 관한 연구이다. 출토복식의 대부분이 16·17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 시기의 사회상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시점을 전후한 직물사용의 변화추이를 조사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써 당시 의복별 직물사용 경향 및 특성을 유추해 보고자한다.

16·17세기 출토복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물의 유형은 면·마·견·교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견직물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견직물, 특히 수자직물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대로 면직물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직물의 문양을 조사한 결과 문양이 있는 직물은 전체의 16%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방령과 전복, 장의와 단령의 유문직물 사용비율이 높았고 액주름, 도포, 주의에서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무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병자호란을 전후하여서는 임란 시점보다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무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별 직물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단령과 철릭에 사용된 직물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면, 마, 견 그리고 중조직이 다양하게 쓰였으나, 임란 이후에는 면, 마, 평견직물과 수자직물로 단순화 되었다.

철릭은 포류 중에서 출토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보고된 철릭 가운데 80% 이상이 16세에 해당한다. 철릭은 걸걸 보다 고름바대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방령은 모두 입진왜란 이전에 집중 출토되어 입란 이후에는 방령이 입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령은 포류 중에서 유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방령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했던 점은 방령의 착용목적이 장식성이 강한 의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장의는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의로 유문 수자직이 높게 조사되었다. 장의의 깃과 겨드랑이 무에는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보인다.

저고리와 치마에 사용된 직물도 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바지에 사용된 직물은 면, 마, 무문평직의 견이 주를 이루었다. 바지에는 속곳도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소재도 목면과 명주가 거의 같은 비율로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 요인은 크게 신분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당상관의 복식은 견직물이 전체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입란 이전 당상관은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문주·문사·문단 등 고급 문직물의 사용도 있었다. 그러나 입란이후에 면, 마직물이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당하관은 평견·면·마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평견직물은 전체의 63%로 당상관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면, 마, 수자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상관과 당하관의 문직물 사용은 당상관이 30%이상, 당하관은 10%정도로 나타나 당하관의 문직물 사용은 당상관의 1/3 정도에 그쳐 신분별로 직물 사용에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직이 없는 자는 면과 마를 주로 사용하였다.

16, 17세기 출토직물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출토복식의 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로는 경기도에서 견 종류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경상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은 출토 수량에 비해 경기도가 적었고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16·17세기를 살았던 이들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을 직물의 유형과 문양을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양란을 전후한 직물사용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묘주별 특성에 따른 직물의 특수성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직물사용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조효숙·임경화·김지연 (2003).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포류(袍類)에 사용된 직물유형 연구. 服飾, 53(4), pp. 113~129.
- 2) <표 1>과 같이 16, 17세기 출토복식 자료 목록을 표로 정리하였다.
- 3) 『經國大典』, 『世宗實錄』, 『中宗實錄』, 『仁祖實錄』, 『孝宗實錄』, 『大典通編』, 『林園經濟志』.
- 4) 한국역사연구회 (1996).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청년사, p. 110.
- 5) 장인우. 16·17世紀 出土服飾과 風俗. 朝鮮時代 服飾研究. 학연문화사, pp. 7~52.
- 6) 대부분의 자세한 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으므로 임현주 (2003).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